

완산칠봉에 한빛마루 공원 조성

전주시, 24일 공원 조성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 진행 2024년까지 172억원 투입 휴식공간·힐링관광 거점 공간 구축

전주 완산칠봉 일원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자 힐링관광의 거점 공간이 될 '한빛마루 공원'이 생긴다.

전주시는 오는 24일 동완산동 완산칠봉 내 한빛마루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공모 참가신청서 등록을 진행한다.

시는 한빛마루 공원을 완산칠봉의 장소적 특성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한옥마을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관시설을 구축해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설계공모에서 시는 변화하고 있는 공원복지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는 수준 높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설계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시는 이날 전국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신청을 받은 뒤 이달 30일 현장설명을 진행하고, 11월 11일 참가신청자들로 부터 공모설계안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후 11월 17일 공모안 발

표와 질의응답 등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당선작이 최종 확정해 해당 업체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6.1ha에 ▲랜드마크 지구 ▲힐링캠프 지구 ▲플라워 갤러리 지구 ▲힐링로드 등 4개 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랜드마크 지구에는 벵거형전망대와 전망데크, 달빛이정원 등이, 힐링캠프 지구에는 힐링센터와 옥상정원, 하늘바람길, 풍욕장 등이 들어선다. 이 가운데 힐링센터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583㎡ 규모의 그린공예 체험교실과 원예치유실, 카페테리아 등이 계획돼 있다.

또 플라워갤러리 지구에는 허브가든과 향기가든, 오색화단 등이 조성되며, 힐링로드에는 데크로드, 그림자조경, 포장길 프린팅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완산칠봉에 한빛마루공원이 조

성되면 인근에 조성되는 '예술공간, 빛의벵거 1973'과 완산공원 꽃동산, 전주동화농민혁명 녹두관 등과 함께 새로운 관광 거점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 한옥마을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은 단순히 도시공간으로서 근린공원 개념을 탈피한 상징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전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쾌적하고 활기찬 수준 높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향후 전주 전역, 나아가 전북 광역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설계공모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조달청(pps.go.kr)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산림녹지과(063-281-25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사용한 캔·페트병 넣으면 현금으로 돌려준다

전주시, 평화동 '온평'에 순환자원 회수로봇 '네프론' 설치... 개당 10원씩 현금으로 바꿔줘

자판기처럼 생긴 기계에 사용한 캔과 페트병을 넣으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이 나눔문화 확산 등 다양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평화동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온평'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네프론'이 설치되면서 페트병을 회수하는 거점이 된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나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네프론'은 인공지능(AI)로 재활용 폐기물을 인식·분류해 캔, 페트병을 회수하는 재활용품 회수 자판기 로봇으로, 사용한 캔과 페트병을 개당 10원씩 현금으로 바꿔준다. 지난 3월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달 말까지 누적인원 732명이 이용해 5개월간 3.7톤의 캔과 페트병을 회수했으며, 현금으로 182만1000원을 바꿔준 것으로 집계됐다.

네프론은 '쓰레기도 돈'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해 자원 순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재활용이 하나로 문화로 자리잡는 데 공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네프론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이 늘어 매일 2회에 걸쳐 회수된 캔과

페트병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수거와 적재에 동참하면서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온평'에는 캔과 페트병을 전환한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자율모금함이 설치돼 있으며, 모금액은 연말에 이웃돕기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맘껏숲&하우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전주시,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전서 건축공간연구원상 수상

전주 덕진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맘껏숲&하우스'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로 인정받았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관한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전에서 맘껏숲&하우스가 공공건축 부문 우수상인 건축공간연구원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보급하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15회째를 맞은 올해는 5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공개모집이 진행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확정됐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이자 공원인 맘껏숲&하우스는 건축이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건물 외벽이 변화하는 박공 목재 프레임(글루랩)을 통해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안전을 위한 난간 역할과 놀이 활동이 가능한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아이들이 놀이·체험·휴식을 즐기기에 충분한 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전에서 맘껏숲&하우스가 공공건축 부문 우수상인 건축공간연구원상을 수상했다.

전주시가 10억7000만 원, 유니세프가 2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개장한 맘껏숲&하우스는 지난 2018년 시와 유니세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아동이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모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 다수의 아동참여 놀이 워크숍을 진행했다.

맘껏숲은 4684㎡(1416평) 규모에 아동과 청소년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청소년 공간으로는 슬리딩 가벽과 황토마당, 맘껏아지트가, 아동 공간으로는 모래놀이

터와 물담뱃, 미끄럼틀, 은행나무 플랫폼, 대나무숲, 트리하우스 등이 조성됐다.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축된 맘껏하우스는 연면적 178.52㎡(54평) 규모에 맘카페와 휴식공간, 무지개다리, 수유실, 활동가 사무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아동의 실내 놀이공간이나 보호자의 대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놀이활동가가 배치돼 기본·계절별·주말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들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공공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의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전에서 '꽃심도서관 우주로 1216'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제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공공부문에서 '전주동화농민혁명 녹두관'이 금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팔복예술공장으로 '2019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2017년에는 '첫마중길'로 '2017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선물세트 과대포장·재포장 위반행위 집중 점검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위반행위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포장검사 전문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선물세트류 등이 제품포장규칙을 어겼거나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제품이지만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제품의 포장기준은 음식료품류, 화장

품류, 잡화류 등의 경우 포장공기비율이 10~30% 이하, 포장횟수는 1~2차로 규정돼 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제조업체에 한국환경공단, 한국전선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가의 포장검사를 명령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종

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이다.

종이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니나 환경공단의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분리배출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점검 결과 법령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이나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분리배출 도안의 크기나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진천군과 통합돌봄 우수사례 공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 전주시와 충북 진천군이 서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전주시는 15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석호 진천군 주민복지과장 및 진천군 선도사업팀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는 진천군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병원에서 지역으로 복귀하는 대상자의 유형 관리 방법과 거점형 통합



돌봄지원센터 운영, 서비스 유료화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주시의 건강-의료 안전망 구축사업과 통합돌봄 서포터즈, 민간지원단 등에 대해서도 진천군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전주시와 진천군은 서로의 장점들을 도입해 각자의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힘을 계획한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화,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형 의료, 요양, 일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